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다같이

여호와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5~8)

찬 송 304장(통일찬송가 404장)「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같이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 도 가족 중에서 다같이

말씀나눔 “참된 평안을 누리자” 인도자
요한복음 14:27(신약p.173)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축복과 비전나눔 온 가족이 다함께

가족 모두 한 해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집안 어른들은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찬 송 ...406장(통일찬송가 464장)「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다같이

1.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4.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쁨으로찬양 530장「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네게 주노라

*기쁨, 사랑

마 무 리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된 평안을 누리자

(요한복음 14:27)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 것, 새로운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설렘’ 또는 ‘기대’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립니다. 지난 날, 오랫동안 묵었던 겹겹의 때를 벗어버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새로움을 통해 설레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새해라는 이유로 이 설렘 속에 서로에게 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만 2년 동안 지속되어온 코로나19 때문에 ‘새 것’이 주는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들로 힘들어 합니다. 옆 사람이 기침만 해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에서 열만 나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마음 속에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이처럼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마음을 불안 속에 갇히게 할 순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곳에 가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함께 있다면 이 아이들은 마치 그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그 이유는 엄마, 아빠와 함께라면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침 삼키는 짧은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듯이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긍정적이고 강한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여전히 우리의 앞길은 불투명하여 기대보다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잘 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